

울릉도는 독도아리랑으로 '후끈'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7월 29일~31일 열려

2013년 여름 울릉도는 회당문화축제로 달아올랐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이 개종자인 회당대중사의 탄생을 기념한 '독도 아리랑, 2013회당문화축제'를 열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7월 29일~31일 3일간 울릉도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회당대중사의 탄생을 기념한 진각종 '독도 아리랑, 2013회당문화축제'가 7월 29일~31일 울릉도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피날레인 7월 31일 개최된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는 통리원장 회정정사, 최수일 울릉군수, 최병호 군의회의장, 박도영 경찰서장, 김철복 울릉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이병국 종무관 외 대중 2,000여 명이 참석 회당 대중사의 위업과 독도사랑의 의미를 함께했다.

사부대중 2000명 참여 '성황' 지역민 화합과 어울림의 장

이날 콘서트에는 여성 걸그룹 비피팝, 크라잉넛, 동물원, 슈퍼스타K 이보경 등이 참여했고 울릉경비대 특공무술시범, 샌드 에니메이션 등이 선보였다.

가족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길희영씨(27)는 "여행 중에 축제소식을 듣고 콘서트에 참가하게 됐다"며 "즐거움 공연과 도동항의 절경이 어우러져 울릉도의 여름밤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서보인 씨는 "중단의 초청으로 처음 만나게 된 회당문화축제는 2013년 여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며

"불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최고의 문화축제라는 것이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열 번째 봉사를 왔다는 진각종 봉사자 강봉좌 씨는 "심에 머무는 동안 밤도 제대로 못 먹고, 땀도 너무 흘리고 때론 지역민들과 부딪히고, 정말 힘든 일정이었다. 하지만 상점 주인들이 물 한 잔 먹고 가라며 다독여 주셨다. 또 행사 동안 행복해하는 지역민과 참가자들을 볼 때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통리원장 회정정사 및 참관단 일행은 7월 30일 개종자인 회당대중사의 탄생지인 금강원을 참배하고 대중사의 위업을 기리는 법회를 개최했다.

울릉도=박경수 부산지사장

심신의 평화 전하는 기도도량 서원

울산 능엄선사 7월 28일 개원 법회

능엄주 기도도량인 능엄선사(주지 지철스님)가 7월 28일 개원 및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 성안동에 개원한 능엄선사는 총면적 231㎡로 법당, 공양간,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능엄선사는 개원을 시작으로 울산지역의 대표적 능엄주 기도도량으로 발전할 것이다. 주지 지철 스님은 "능엄주는 가장 긴 주머니며 그 원력 또한 수승한 진언"이라며 "스트레스와 번다한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심신의 평화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인 능엄주 기도를 울산시민들에 포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개원 취지를 전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대구 신광사 중운 스님, 울산사암연합회장



능엄주 기도도량 능엄선사가 7월 28일 개원했다.

항상 스님, 지장 정사, 주지 현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신붓다의 조건' 주목

종교 초월한 지역 학생 여름수련

경북지역 중고등학생 30명이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 선체험관에서 '신붓다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종교를 초월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108배 발우공양 사찰에 절 명상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장면

기도법사 도승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모인 학생들이 동참해 마음을 닦는 법을 체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날 스님은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따른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고 편안한 건강과 장수 네 가지 복이 더욱 증장된다"며 법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육바라밀 체험으로 불법 익혀

운문사 제 35회 여름불교학교 7월 26~28일

제35회 운문사 여름불교학교가 7월 26일~28일 운문사 일대에서 열렸다. 초등학교 200여명이 참석한 여름불교학교는 발우공양 예불 및 108배 걷기명상, 육바라밀 체험 등을 통해 2박 3일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운사 '신붓다의 조건'

여름불교학교장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운문사 여름학교에 온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육바라밀의 체험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어린이들은 불교문화체험 이외도 물놀이 쫓불의식 및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손승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일본 사찰경관 흉내내서야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는 한 뿌리에서 피어난 서로 다른 꽃이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그곳의 고유한 문화와 전파된 본래의 불교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불교문화를 만들어낸다. 특히 불교문화를 3차원적으로 해석한 사찰의 조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사찰은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의 사찰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고유한 사찰의 형식과 경관을 보이게 된다. 중국의 사찰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중층의 구조를 가진다면, 한국의 사찰은 산지로

울거가면서부터 중국과 같은 건물 중심의 구조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일본의 사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중심의 사찰 구조로 정착된다.

우리나라의 산지사찰에서 정원의 존재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로부터 고려시대의 송광사, 조선시대의 봉선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온다. 단지 일본의 사찰과 같이 정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만들어진다. 정원이 다들 뿐이다.

일제강점기에 몇몇 사찰이 일본사찰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못의 형태나 도수로의 형태를 흉내 낸 사례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래에도 일본사찰의 고산수양식의 정원과 유사한 정원을 만든 사

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그 작품이 스님의 창작의지에 따라 만들어낸 독창적 작품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견 일본풍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사찰에서는 선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 고산수양식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원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정원은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성을 가진 훌륭한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고산수양식의 정원이 일본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찰은 일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정원 또한 일본에 건너간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기술을 시원으로 한다. 이렇게 선진적 정원문화를 가진 우리가 일본사찰에 만들어진 작품을 흉내 낸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이루어낸 사찰경관의 진정성을 지켜내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일본사찰의 고산수정원에 만들어진 조형물과 유사성을 가지는 작품. 대구광역시 ○사찰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룩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